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감독 아론 호바스, 마이클 제레닉

출연 크리스 프랫, 안야 테일러 조이, 잭 블랙, 세스 ...

개봉 2023. 04. 26.

지난달 26일에 개봉하자마자 본 영화인데, 이제서야 리뷰를 남겨봅니다.

구체적인 스포일러를 남길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영화 보실 예정이라면 영화 보신 후에 리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뷰는 그냥 생각나는 것들 위주로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개봉일이 때마침 문화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 문화생활 장려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영화나 공연 등을 관람하면 이런저런 혜택을 제공합니다.

영화의 경우 문화가 있는 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직영관 등지에서 관람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요.

(영화 입장권 / 영수증 겸용)

무인발권 (2023-04-26 17:00:05)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The Super Mario Bros. Movie
전체관람가 / 20(자막)

2023-04-26(수) 4회 17:00~18:42
3관 H-7,8 (성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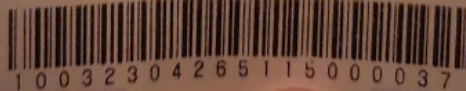
(영화발전기금 3% 포함)

상세결제내역

신용카드 : 14,000원
KB국민카드(일시불), 승인번호(24127241)
536510***** 14,000원

- 좌석 교환 및 취소는 티켓에 표기된 상영 시간 20분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지연입장에 의한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본 영화는 티켓표기 시간보다 10분 후에 시작됩니다.
- 주차할인 등록은 매표소에서 가능합니다. (매표소 마감 시 등록불가)

동대문(2018521532)



1 0 0 3 2 3 0 4 2 6 5 1 1 5 0 0 0 3 7

동대문 메가박스는 4년 전에 친구와 기생충 보러 왔던 이후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전 중이나 점심시간 즈음에 영화를 볼 생각이었는데, 다른 일정으로 시간이 늦어져 오후 5시로 영화 보는 시간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다른 영화관도 대동소이한지는 모르겠으나, 메가박스에서는 17:00 ~ 21:00 내의 시간에 상영하는 2D 영화의 관람권의 가격을 7,000원으로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더라고요.

애초에 문화가 있는 날인지도 몰랐는데, 운이 따라준 덕분에 싸게 관람했습니다.



쓰다가 생각났는데, 메가박스에서 천 원대로 저렴한 음료가 있길래 함께 주문했다가 취소되어 다시 주문하는 해프닝을 겪었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 관람 전 음료 사서 마시고 난 뒤 영화 끝나고 리필할 때만 적용되는 가격이었다고요.

약간의 민망함과 함께 영화 관람 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음료 리필이 가능하다는 메가박스 팁 하나 얻어 갔습니다.

함께 본 후배가 좋아하는 나초와 제대로 주문한 제로 콜라와 함께 영화 관람 시작!

개인적으로는 꽤나 재미있게 봤습니다.

평론가 평점은 적당히 잘 나온 것 같고요.

김성희 아저씨가 이틀 전에 리뷰 영상 올리셨던데, 제가 느끼기에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은 김성희 아저씨나 저나 상당히 흡사합니다.

<https://youtu.be/bxyyagoKhdQ>

게이머들은 평론가에게 휘둘리지 말 것 [슈퍼마리오 더 무비]



이 영화는 슈퍼 마리오 IP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다지 친절한 영화가 아닙니다.

관람객 대부분이 슈퍼 마리오, 마리오 카트 등을 접해봤을 것이라 가정하고, 이들을 위한 일종의 팬 서비스 차원에서 나온 영화인 듯합니다.

하지만 게임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보더라도 영화 전반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게임 오마주 찾는 재미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영화에는 다양한 게임 오마주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초반에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맘마미아'와 게임 OST에서 미묘하게 변형된 영화 OST를 들으며 가장 많이 느꼈고, 기타 제가 찾지 못한 요소들도 상당한 듯합니다.

아직 저도 제대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관람 후 이런 요소 정리해둔 인터넷 글 찾아서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는 정말 뻔합니다.

기존에 많이 알려진 슈퍼 마리오 스토리에 피치 공주의 비중을 키우고 그 사이사이가 이것저것 가미했습니다.

클리셰 정말 많이 등장하고요.

높은 평가를 받긴 어렵겠지만, 반대로 낮은 평가를 받기도 어려운 영화라고 봅니다.

일단 애니메이션이 잘 뽑혔습니다.

적어도 제 눈엔 자연스럽고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캐릭터도 잘 나오고, 서사 이해도 어렵지 않은 데다가, 오랜 시간 보아 온 캐릭터에 갖고 있는 애정까지 합쳐집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이나 빵빵 터졌던 슬로 모션 개그가 수없이 등장해도 이상하게 정이 갑니다.

전개가 답답하지 않고 시원시원한 것도 한몫하고요.

가족끼리 부담 없이 1시간 반 가볍게 킬링 타임 용으로 보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리뷰 끝!



영화와 같은 제목의 게임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의 용량은 40KB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 링크](#)

이후 출시된 3D 게임 '슈퍼 마리오 64'의 용량은 8MB라고 하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이전에 파이썬과 C 언어로 간단한 게임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확한 용량은 기억나지 않지만 파이썬 게임은 이미지 파일만으로도 8MB는 훌쩍 넘기고, C 언어도 40KB는 넘겼던 것 같아요.

도트 찍고 게임 코드 짜면서 최적화까지 하는 건 지금에 와서도 정말 힘든 일인데, 당시 어떤 노력이 있었을지 저로서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네요.

2.

여담이지만 이걸로 영어 공부해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성우들 발음이 또렷이 잘 들립니다.

분명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쇼츠 영상 올라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3.

크레딧 보기 전까지 당연히 게임 성우 그대로 썼겠거니 생각했는데, 크리스 프랫이 마리오, 잭 블랙이 쿠파 성우인 건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4.

엔딩 크레딧 이후 쿠키 영상 있습니다!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같이 본 후배가 크레딧 보는 동안 영화에 등장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던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 캐릭터와 관련된 영상이 나옵니다.

후속작을 암시하는 것 같네요.

5.

전 세계 유니버설 파크 앤 리조트에 닌텐도 IP를 활용한 어트랙션이 일본을 시작으로 조금씩 개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영화는 닌텐도가 미디어 믹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종의 홍보 차원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